

현대사회에 나타난 레깅스 패션에 대한 연구

김장현*, 유진우**, 이유림**

*디자인 팩토리

**신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e-mail:jamie8122@naver.com

A Study on the Leggings Fashion in Modern Society

Jang-Hyeon Kim*, Jin-Woo Yu**, Yu-Rim Lee**

*Design Factory

**Dept. of beauty design, Shin-G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레깅스 패션에 대한 감성적 경향 파악 및 대학생들이 레깅스 패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레깅스 패션에 대한 감성적 경향 탐색 및 대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레깅스 패션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한 후, 레깅스 패션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레깅스 패션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고찰해본 결과, 레깅스 패션의 착용감이나 외형적 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면에 레깅스 패션에 대한 시각적 거부감과 범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레깅스 패션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경우, 패션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패션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레깅스 패션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경우, 자기중심적인 의복의 착용을 통해 타인에게 민망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의복의 기본적 예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레깅스 패션에 대한 감성적 경향 및 대학생들의 레깅스 패션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함의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레깅스 패션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레깅스 패션을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현대사회는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로 인한 에슬레저룩의 활성화, 코로나 19로 인한 원 마일 웨어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착용자에게 편안함과 활동성을 제공해주는 레깅스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과도한 레깅스 패션의 일상화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레깅스를 구매하는 주요 소비층이 20대라는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레깅스 패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레깅스 패션의 감성적 경향 파악 및 대학생들이 레깅스 패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레깅스 패션에 대한 올바른 의복 문화 정립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깅스 패션의 개념 및 레깅스 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레깅스 패션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감성적 경향에 대해 고찰해본다. 셋째, 대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레깅스 패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수행한다. 넷째, 앞서 진행한 감성어 분석 및 서술응답을 토대로 레깅스 패션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레깅스 패션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고찰해본 결과, '편안하다, 슬림, 글래머, 날씬하다'의 긍정적인 키워드가 7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키워드는 28%

로, ‘신경 쓰이다, 불편하다, 민망하다, 노골적, 범죄’로 나타났다. 이 같은 키워드로 레깅스 패션에 관련된 감성적 경향을 살펴보았을 시, 레깅스 패션의 편안한 착용감 및 외형적 미의 형성이라는 효율적인 측면에 높은 관심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면에 레깅스 패션에 대한 시각적 거부감과 범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레깅스 패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서술 응답을 수행해본 결과, 84명의 학생이 레깅스 패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명의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깅스 패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으로 신체라인의 보정을 통한 건강 및 자존감 증진, 편안함과 활동성을 겸비한 실용적 가치, 유행의 흐름에 대한 동참 등의 여러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패션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패션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레깅스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으로 과도한 노출로 인한 성범죄의 확산, TOP에 벗어난 의복의 고착화, 아이템의 일원화로 인한 개성의 상실, 신체적 압박을 통한 건강의 불균형 초래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자기중심적인 의복의 착용을 통해 타인에게 민망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복의 예의가 상실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레깅스 패션과 관련된 감성이 분석과 대학생들의 레깅스 패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면, 착용자 측면에서 레깅스 패션의 착용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레깅스 패션을 추구해야 함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오늘날 레깅스는 운동복과 일상복의 장점을 두루 갖춘 하나의 패션 아이템임을 고려해본다면, 레깅스 패션 역시 개인의 스타일이자, 유행의 하나임으로 무조건 배척하기 보다는 한 사람의 패션 스타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레깅스 패션은 하나의 사회적 논란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패션 문화의 도전과 낯설음 사이에서 유발되는 간극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움이 익숙함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20대가 새로운 패션 문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정립한다면 새로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더욱 앞당길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